

광 고

# 원양산업

## 제 1156 호

(2023년 4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품)

## Contents



### 협회소식

- 협회,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참석 / 4
-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 4
- NPFC 제7차 연례회의-제6차 이행위원회 개최 / 5
- 해외수산협력센터, 2023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실시 / 6
-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 6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3년 3월 보고 내용 / 7

#### ■ 요리 만들기

- 통오징어짬뽕 / 11



### 해외수산정보

#### ■ 국제유가 동향

- 4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동일 / 12

#### ■ 참치어업 동향

- 방콕 가다랑어, 톤당 2,000 달러 도달 / 13
-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2월 어획량 감소 / 13

- 日, 2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kg당 934 엔 / 14
- 인도양 참치 가격 톤당 1,525 유로 / 14
- 日, 2월 냉동 참치류 수입 통계 / 15
- 소말리아, IOTC FAD 금지 조치 이의 제출 / 16
- EU, 인도양 dFAD 결의안 이의제기 검토 중 / 16
- 스페인 선망협회, ICCAT 보존조치 비판 / 17
- ISSF, 참치 부문 보고서 발표 / 17
- EU 황다랑어, 가격 톤당 2,900 유로 / 18
- 엘니뇨 '경계' 상태 지속 예상 / 18
- 美 행정부, 태평양 대규모 보호구역 설정 제안 / 19
- 美 FDA, 참치 수입 관련 규정 강화 계획 발표 / 20
- 참치 처리 새로운 시설 오픈 / 20
- 참치 선망어선 EM 카메라 설치 표준 초안 발표 / 21
- "금어기, 선망선사 이익, 가공업체 손해" 연구 발표 / 22
- 美 FMI, "2022년 수산물 매출 감소, 참치통조림 호조" / 22
- 에콰도르, 참치 수출 전년 대비 20.7% 감소 / 23
- 日 마루하니치로, 참치 사업 확대 발표 / 23
- Bumble Bee社, '공정하고 안전한 공급망' 주장 삭제 / 24
- 中 선전시, 참치 프로젝트 개시 / 24
- 아르헨티나 참치 통조림 가격, 작년부터 급등 / 24

## Contents

### ■ 오징어어업 동향

- 포클랜드, 2022년 어획량 지난 10년 평균 상회 / 25
- 어획 부진으로 2023년 일렉스오징어 가격 상승 예상 / 25
- 日, 2022년 오징어 총공급량 4% 증가 / 26
- 아르헨티나, 2023년 1월 오징어 수출 증가 / 26

### ■ 명태어업 동향

- 러-중간 2023년 어업분야 협력 계획 확정 / 27
- 러, 4월 초까지 어획량 11% 증가 / 27
- 러 어업인, 선단 갱신을 위해 단결 / 28
- 러, 명태·대구 등 저차가공품 수출 제한 검토 / 28
- 러, 2024년 어획 전망과 기회에 대해 논의 / 29
- 러 수산청, 오호츠크 어기 마지막 회의 개최 / 29
- 러, 어류 소비 증대 계획 포기 / 30
- 美, 알래스카명태 자국 필렛 공급량 30% 증가 / 30
- 英, 2022년 러시아산 흰살생선 수입 급감 / 31
- 벨라루스, 극동에서 처음으로 어획 시작 / 31
- 한국, 러시아산 어류 공급량 감소 / 32
- Peter Savchuk, 러 수산청 부청장직에서 해임 / 32
- 러, 내수 시장으로 가는 생선 / 33
- 러 조선소, 40억 달러의 투자 쿼터 계획 / 33

### ■ 꽂치어업 동향

- NPFC 회의 결과 꽂치 공해 TAC 24% 감축 / 34
- 日, '22년 12월 냉동 꽂치 재고 6,647톤 / 34
- 日 연구기관, "꽂치 어획 감소, 해양 환경 변화 원인" / 35

### ■ 각국 수산 동향

- 아르헨티나, 남조지아 제도에서 어업 연구 완료 / 36
- 리퍼 컨테이너 운임, 팬데믹 이전 수준 근접 / 36
- WTO 회원국, 수산 보조금 후속 협상 개시 / 37
- 美 수산물 매출, 식품 지원 기금 종료로 위축 예상 / 37
- FAO, 2021년 세계 어업·양식 생산량 발표 / 38
- 日 기업, AI로 수산물 이물질 검출 기술 실험 / 38
- RFMO 회의 공개 액세스 요구 프로젝트 추진 중 / 39
- 아르헨티나 연육 공급업체, 트롤 어선 업그레이드 계획 / 39
- 中, 2022년 수산물 수입 190억 달러로 급증 / 40
- 호주, 양식 및 어업 가치 전년 대비 8.2% 증가 / 41

### ■ 쉬어가는 난 (시)

- 〈바다〉 - 박필상 / 42

### ■ 국내 수산 정보

- 3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3
- 3월 명태 국내 동향 / 45
- 김정례 주무관, NPFC 부의장 선출 / 47
- 원양 항해 중 아플 땀 해양원격의료로 / 47
- 우리 바다 방사능 안전성, 지도에서 한 눈에 / 48
-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일 보고서 발표 / 49
- 2022년 해양사고는 소폭 증가, 인명피해는 감소 / 50
- 올해도 안전어선, 안심어업 지속 추진한다 / 50

## 협회,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참석

### 대통령 “수산업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해양수산부는 3월 31일 통영 영운항에서 ‘풍요로운 바다, 활력있는 어촌, 함께하는 수산인’이라는 주제로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양수산 관계자와 어업인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윤명길 회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하였다.

현직 대통령이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난해 수산물 수출액이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은 점을 축하하며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R&D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산업의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혔다.

##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 원양 업종별 현안사항 논의 및 의견 수렴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회가 지난 3월 17일 세종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이재영 원양산업과장 등 관계관 3명, 해양수산개발원(KMI) 정명화 실장 등 연구진 4명, 과학원 김두남 원양자원과장,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김승현 주무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제협력실 이경선 실장, CRCSF 김장근 박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경영지원본부장 등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종합계획 연구용역 착수에 앞서 용역 내용 관련 설명과 함께 정부, 업계, 학계 등

각계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우리 협회는 △선원(해기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및 원양어업 3대요소 활성화 지원사항의 적극 반영 △대외규제 및 보존조치에 맞지 않는 부분의 법령 개정·개선 요구 △RFMO 등 지역협의체의 규제와 그에 따른 진흥/지원계획 반영 및 사업구조와 정부구조상 부족한 부분의 검토 △식량안보산업으로서 해외수산자원의 역할 강조 및 확보방안 반영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 △NGO,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 강제노동 이슈 등 신국제규범에 대한 대응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 NPFC 제7차 연례회의·제6차 이행위원회 개최

공치 TAC 감축, 어획노력 감축안 등 논의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제7차 연례회의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진행되었다.

동 회의에 앞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6차 이행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김정례 주무관·원태훈 주무관, 조업감시센터 김승현 계장·김태린 주무관, 국립수산물과학원 송혜진 연구사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김치영 공치붕수망어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최상진 사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공치 보존관리조치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협약수역과 EEZ를 합친 연간어획량 한도는 25만톤으로 설정되었고, 협약수역 TAC는 15만톤으로 설정되었다. 해당 한도는 '23-24년 적용된다.

해당 한도는 '18년 어획량에서 55% 감축된 것이며, 한국 TAC는 9,342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어 보존을 위해 동경 170도 이동수역 6~7월 조업금지를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어획노력 감축을 위해 ▽'18년 실조업척수에서 10%를 감축하거나 ▽연간 조업기간을 180일(연속된 날짜)로 제한하는 두 가지 방안 중 국가별로 하나를 선택하여 매년 5월 1일까지 사무국에 통지하는 조치가 채택되었다.

한편, 이번 이행위원회에서는 '22/23 IUU 선박 등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2/23 잠정 IUU 선박 28척('22년 12척, '23년 16척 - 중국 23척, 파나마 3척, 러시아 1척, 시에라리온 1척)의 위반사항에 대한 회원국 간 논의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22/23 IUU 선박목록에 4척이 등재되었다.

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4척은 파나마 운반선 3척, 시에라리온 탱커선 1척이다.

## 해외수산협력센터, 2023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실시 조사결과 '23년 8월 이후 공표

한국원양산업협회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오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내외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원양어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2011년, '원양어업 총조사'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2012년 『통계법』상 국가승인통계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원양업체 생산·수출 및 경영실태

등이며 방문 조사와 이메일 조사를 병행한다.

해외수산협력센터 이상묵 센터장은 “통계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원양어업 정책, 연구 및 경영전략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원양어업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조사결과는 2023년 8월 이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표될 예정이다.



##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관련 의견청취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가 지난 4월 5일 한국해운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이민석 과장, KMI 황진희 실장 등 연구진 및 선원노련, 원양선원 노조 등 선원단체, 해운협회 등 선주단체

등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경영지원본부장과 소기동 부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인 KMI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연구 기본방향, 연구방법, 연구방법 등) 및 관련 단체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3월)

###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 가. 정부, 산업 어업 면허 수수료  
250%로 결정
- 세네갈 정부와 어업 이해당사자는  
지난 3월 10일 산업 어업 면허에  
25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유로/톤)	유종	조사일
다카르	725	경유	'23.3.24

####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10kg	1,900
	1.8~3.4kg	1,850
	1.5~1.8kg	1,700
황다랑어	3.4~10kg	1,950
	1.8~3.4kg	1,850
	1.5~1.8kg	1,700
눈다랑어	3.4~10kg	1,900
	1.8~3.4kg	1,850
	1.5~1.8kg	1,700

###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 가. 일본 항공편 재개
- 코로나 팬데믹으로 운항이 중단되  
었던 피지항공의 일본 나리타행  
항공편이 재개되었다.
  - 지난 4월 4일 250명의 승객이 탑  
승한 나리타행 첫 항공편을 시작으로 주2회(화, 목  
요일) 왕복편이 시작되었다.

#### 나. 피지 정부, GDP 50% 성장 목표

- 피지 정부는 정부 부채를 갚으며 향후 10년간 국내  
총생산(GDP)을 50%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 무역부 장관 Manoa Kamikamica는 국가 및 민간  
차원을 포함한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것이  
피지 경제를 위한 최상의 경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  
이 되도록 재정 문제를 다루는 재정 전문가의 지원  
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900	로인가공용(PAFCO)

####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1,030\$/톤	MGO	'23.4.6



##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의 평균 어획량은 날개다랑어 0.5~1.0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2~0.3톤이다.

### 나. 기후 변화 영향, 참치 산업에 위협적

- 서태평양 지역어업관리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의 영향은 아메리칸사모아 뿐만 아니라 아메리칸사모아가 지원하는 다른 태평양 지역 사회, 특히 사모아, 니우에, 토켈라우 및 통가에도 파괴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보고서에 따르면 아메리칸사모아의 해수면이 2100년까지 2.64.6피트 상승하면 해안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침강은 2060년까지 기후 변화만으로 이미 예측된 해수면 상승의 약 2배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 해수면 상승은 항구 근처에 위치한 Starkist 사모아 공장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황다랑어	라운드	1,700	
눈다랑어	라운드	1,500	
가다랑어	라운드	1,500	

###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3.49(gallon)	'23.4.6

##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 가. 오징어 어획량 급감

- 오징어의 어획량이 반 이상 줄었음. 작년 대비 전체 어획량은 거의 1/3 수준이며, 그나마 한국어선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어획하여 작년 대비 반 정도 어획하였다.

###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톤)	유종	조사일
Z	1,106	MGO	'23.4.11

###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	규격	단가(\$/톤)	비고
SQUID	2L	4,850	-
	L	4,850	
	M	4,300	
	2M	3,650	
	S	3,650	
	2S	-	

##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관

### 가. 어업 동향

- 오징어 시즌이 진행된 1월 10일부터 남위 44도선 남쪽으로 Bah a Camarones에서 160 마일 떨어진 Jorge Gulf.에서 조업이 시작되었다.





- 2월 20일 이후 남위 44도 어장에 폭풍이 발생한 이후 오징어 어장에 이상 징후가 발생, 1/2 수준으로 조업량이 감소하였다.
- 악천후 이후에도 약 70척의 어선이 조업 가능한 어장을 찾을 방법이 없어 조업 중단 상태이다.
- 다수 선박은 분열되어 일부는 빈 어창 상태로 회항을 결정했고 일부는 어탐 작업에 남아있다.
- 전년 대비 전체 어획량 -17%(3월 20일 기준)

#### 나. 중국, 해군기지 건설 장소 물색

- 중국이 아르헨티나의 남쪽에 위치한 티에라 델 푸에고의 우수아이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할 장소를 찾고 있다.
- 칠레 Finis Terrae 대학의 국제 문제 관측소 책임자인 Alberto Rojas는 이를 통해 중국이 군사 주둔뿐만 아니라 및 지역 통신과 해상 교통을 장악할 힘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 다.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 경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금년 물가인상률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높은 금리와 대선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경제상황이 예상된다.

#### 사.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리터)	유종	조사일
EPSOL YPF	1.13	MGO	'23.3.30

#### 아. 어류가격 동향

어종	사이즈	가격(\$/톤)	비고
일렉스 오징어	200/300	2,350	2항차 후 가격 상승
일렉스 오징어	3300/500	2,455	3항차 어획량 감소로 상승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관

#### 가. 산업용 어선 EMS 의무화

- 지난 3월 초, 가나는 2025년까지 상업 어업 전반에 걸쳐 100% 투명성 달성 약속을 발표하였다.
- 가나는 어로 행위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되고 귀중한 데이터가 수집되도록 비디오 카메라, 원격 센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및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하드 드라이브를 어선에 설치할 계획이며, 이 장치가 가동되면 어업 관리자들이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고 총 어획량이 얼마인지 더 잘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 Mavis Hawa Koomson 가나 수산양식개발부(MoFAD) 장관은 EMS를 배치함으로써 가나가 불법 어획, 치어 어획물 해상 전재, 그리고 어선에서의 노동 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선박 소유주들과 가공업자들에게 귀중한 운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나. 해양 사고 조사 요령 워크숍 개최

- 국제 표준에 따라 해양 사고를 조사하는 국가의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이 Accra에서 개최되었다.
- 이 교육은 또한 참가자들에게 조사 설정, 의무 기준 적용, 위험 파악을 포함한 필수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kl)	유종	조사일
양상급유	920달러	MGO	'23.3.31



##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



이재원  
명예해양수산물

### 가. 2022년 3분기 시점 해양 수산물 투자실현 내역

- 투자실현액
  - 총 액수: 6조 3,900억 루피아 (2021년 대비 약 45.6% 증가)
  - 국내기업: 2조 3,600억 루피아(37%)
  - 외자기업: 1조 루피아(16%)
  - 신용대출액: 3조 300억 루피아(47%)
  - 양식업: 2조 1,200억 루피아(33%)
  - 가공업: 2조 400억 루피아(32%)
  - 유통업: 1조 4,000억 루피아(22%)
  - 어업: 6,183억 루피아(10%)
  - 수산서비스업: 2,108억 루피아(3%)

### 나. 2022년 불법조업선 나포 내역

- 인도네시아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97척의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였다고 1월 5일 발표하였다. 나포 선박은 외국어선 18척, 인도네시아 어선 79척이다.
- 2만 3,265척의 국내어선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어선 사업자의 규정준수율은 92.17%이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적 손실 유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및 주권 문제로 인해, 불법 조업을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큰 위협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 다. 남중국해 반중전선 확장- ‘반중’ 택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 참여 및 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하였다.
-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5개국의 반중전선이 형성되었다.

##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 가. PNG 어업 인프라 구축 계획 회의 개최

- PNG 어업 인프라 구축 계획 2023~2025 회의가 개최되었다.
- 현재 PNG 수산청은 조금은 공격적으로 자국 수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단기(2023~25)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련, 이번 모임에는 기존의 참치공장(국내) 사업가들 외에, 극히 일부의 개인회사들만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문답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 어려움을 겪는 PNG 수산청(정부)에 많은 자금의 지원이 필요치는 않으나, 한국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 가능하다면 국·가간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리터)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0.8433	Diesel	'23.4.8

< 게재순서: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



## 통오징어찜뽕



###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손질한 통오징어 1마리, 꽃게 1마리, 조개 1줌, 새우 2마리, 숙주 1줌, 대파 1대, 당근1/4개, 양파 1/2개, 청경채 1개,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썬갓 2개, 고추기름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1작은술

#### <양념>

고추기름 2큰술, 다진 생강1작은술, 다진마늘 1큰술, 굴소스 2큰술, 간장 3큰술,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치킨스톡 1개, 물 1L

###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감자, 호박, 양파는 사방 1.5cm의 크기로 썰어준다.
- ② 냄비에 고추기름을 두른 후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서 향을 낸다.
- ③ 2의 냄비에 청경채를 제외한 썰어놓은 1의 야채를 볶는다.
- ④ 3의 냄비에 꽃게, 조개, 새우를 넣고 볶는다.
- ⑤ 4의 냄비에 양념을 넣고 볶다가 물, 치킨스톡, 청경채를 넣어준다.
- ⑥ 5가 어느 정도 끓으면 손질한 통오징어를 넣고 썬갓을 올려 완성한다.



## 4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동일

4월 10일 기준 767 달러

국제유가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폭 둔화, 미국 SPR 재구매 가능성 등으로 상승하였다.

4월 14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5.61 달러, WTI 가격은 82.20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86.11 달러를 기록하였다.

4월 10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760 달러로 3월 10일(745 달러) 대비 2% 상승하였다.

4월 평균(4.1~4.10) 가격은 767 달러로 전월 평균(3.1~3.1) 760 달러 대비 거의 동일하였다. 전년 4월 4.1~30) 평균과 비교해서는 24% 하락했고, 전전년 4월과 비교해서는 45% 상승하였다.

2023년 평균(1.1~4.10) 가격은 814 달러로 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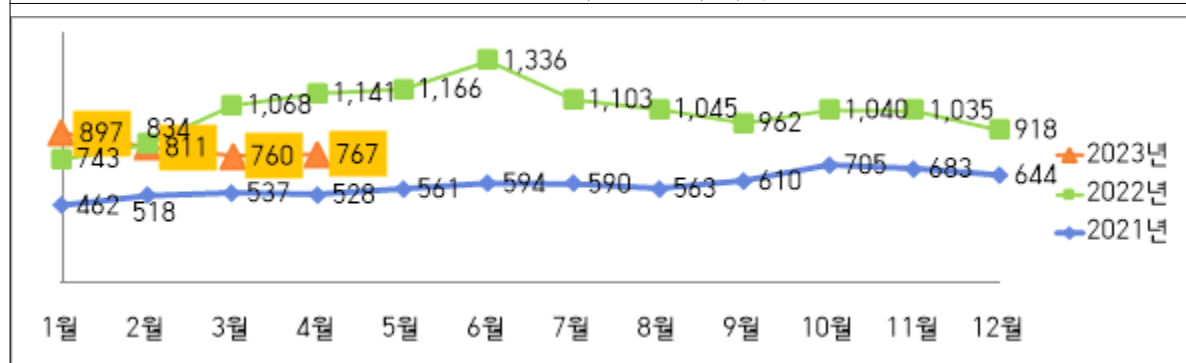
(1.1~12.31) 평균 대비 21% 하락, 전전년 평균 대비 39% 상승하였다.

2022년 평균(1.1~10.10) 가격은 1,046.11 달러로 전년(1.1~12.31) 평균 대비 79% 상승, 전전년 평균 대비 171%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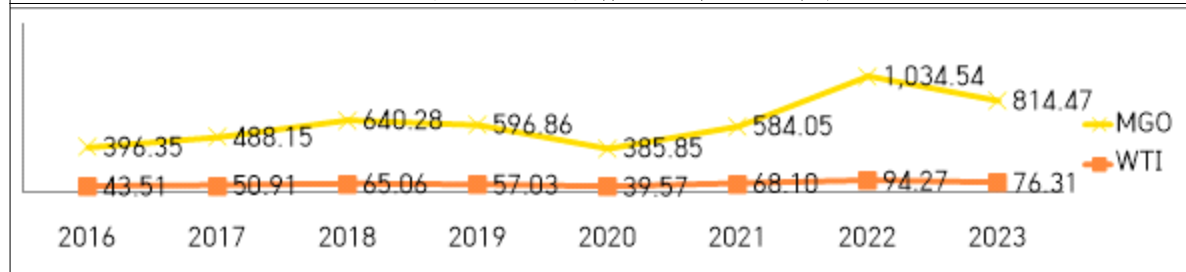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였다는 소식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위험선호 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도 잇달아 유가 전망치를 상향하였다. 골드만삭스는 OPEC+ 감산 결정이 나온 직후 올해 브렌트유 전망치를 기존의 배럴당 90달러에서 95달러로, 내년 전망치는 배럴당 97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렸다. UBS는 오는 6월에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월 평균 싱가포르 벙커 가격 〉



〈 연 평균 MGO 벙커, Brent, WTI 가격 〉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2,000 달러 도달

### 공급 부족으로 추가적 상승 가능성 존재

소식통에 따르면 방콕 가다랑어 거래는 톤당 2,000~2,050 달러 선에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 따라서 방콕 1.8kg 이상 냉동 가다랑어 원어 현물 가격은 톤당 2,000 달러로, 2주 전 보고된 금액 대비 약 3% 상승하였다.

태국 생산량은 더 많은 선적 지시 및 새 계약 체결 등으로 다소 회복되었다. 한 주요 가공업체 측은 “이번 원어 가격으로 인해 고객들은 이전 가격으로 구매하려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가공업체들은 공급 부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선망 어획량은 2022년 11월부터 감소 추세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2월의 일일 평균 어획량은 25~28톤이었으나, 올해 2월 일일 평균 어획량은 약 16톤에 그쳤다.

대부분의 원어는 방콕으로 향하고 나머지는 보통 필리핀 제너럴산토스, 에콰도르 만타 등 타 가공 지역으로 운반된다. 가다랑어를 확보하기 위한 허브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참치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에 어획된 원어는 4월 중하순경 방콕에서 출하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안에 가다랑어 가격이 2,000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3월 30일자

##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2월 어획량 감소

### 가다랑어 공급 우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수역 및 공해상에서 어획된 가다랑어 어획량은 1월 대비 24% 감소하였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2022년 11월부터 명백히 감소 추세이다. 가다랑어와 타 어종의 합산 어획량은 1월 대비 20% 감소한 7만 3,159톤으로 지난 14개월 중 최저치이다. 2022년 2월에는 선망선 어획량이 9만 5,000톤에서 11만톤으로 더 성공적이었다.

지난 수개월과 마찬가지로, 선망 선단은 2월에도 중서부태평양 서부 구역에서 주로 활동하였고, 중서부태평양 내 구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어획량(약 5만 6,000톤)을 기록하였다. 마이크로네시아

가 7,500톤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해와 타 EEZ의 어획량은 하락세가 확인하였다.

일일 가다랑어 어획량은 참치 부문의 주요 관심사이다. 2월 어획량은 지난 4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 나갔다. 일일 평균 어획량은 15.8톤으로 1월 대비 12% 감소하였다. 지난 수년 동안 1년 중 첫 2개월의 평균 일일 어획량은 25~28톤 수준이었다.

이 어획물 중 대부분의 목적지인 방콕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공업체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대란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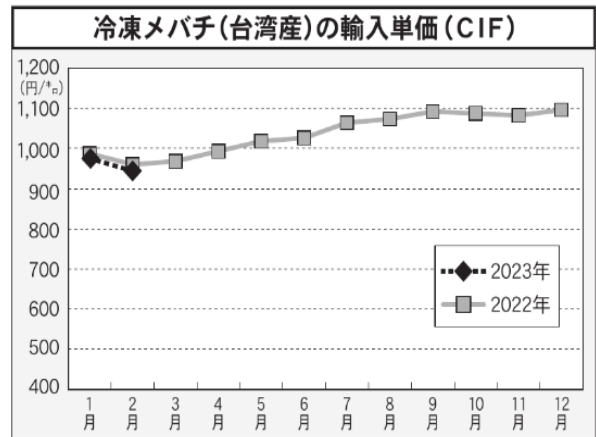
\* 출처: Atuna, 2023년 3월 29일자



## 日, 2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kg당 934 엔 대만산 단가 kg당 944 엔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월 참치류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수입량 365톤(전년 동월 대비 9% 증가), 수입액 6억 9,500만 엔(55% 증가), 냉동 1만 424톤(7% 감소), 151억 3,900만 엔(2% 증가), 가공품 3,718톤(29% 증가), 29억 1,300만 엔(63% 증가)이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kg당 단가는 934 엔(4% 하락)으로, 또다시 전월 대비 하락하였다.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의 kg당 단가는 944 엔(2% 하락)으로,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만산 눈다랑어 수입 단가가 950 엔 미만을 기록한 것은 2021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4월 6일자

## 인도양 참치 가격 톤당 1,525 유로

### 인도양 공장 구매 둔화로 방콕에 판매할 가능성 존재

세이셸 냉동 가다랑어 원어 1.8kg 이상의 3월 말 가격은 3월 초 대비 10 유로 높은 톤당 1,525 유로(1,667 달러)로, 인도양 가공 공장들이 이 가격에 구매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수요는 낮았다. 세이셸의 IOT 공장은 생산이 둔화하였고, 모리셔스 Princes 공장 2곳의 구매량은 적은 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선망 선사들에게는 컨테이너나 냉동선으로 방콕에 판매하는 것이 더 좋은 거래가 될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 방콕 가

다랑어 가격은 톤당 2,050 달러로, 방콕은 지난 몇 달간 원어 부족을 겪었다.

마다가스카르 통조림 공장을 포함한 인도양 가공 공장들은 어획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식통들은 5~6월 어획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3개월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한다.

\* 출처: Atuna, 2023년 3월 29일자





## 日 2월 냉동 참치류 수입 통계

한국산 눈다랑어 136톤

〈 2023년 2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구분		1월	2월
날개다랑어	한국	-	96
	대만	27	4
	바누아투	-	1
	기타	105	42
	소계	133	144
황다랑어	한국	173	217
	중국	54	338
	대만	1,295	1,668
	필리핀	987	245
	인도네시아	26	94
	미국	-	-
	바누아투	56	168
	피지	16	12
	키리바시	4	2
	마셜제도	180	1
	기타	1,662	692
	소계	4,453	3,437
눈다랑어	한국	84	136
	중국	136	373
	대만	1,717	1,538
	필리핀	-	-
	인도네시아	1	30
	세이셸	562	280
	바누아투	41	309
	기타	36	82
	소계	2,578	2,748
남방참다랑어	한국	-	132
	대만	6	10
	호주	-	-
	소계	-	-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4월 6일자



## 소말리아, IOTC FAD 금지 조치 이의 제출 Europeche 반대의사 재표명

소말리아가 2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특별 세션의 부유형 FAD 금지 조치안에 이의를 제출하였다.

IOTC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이 조치 채택 후 1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안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또한 회원국 중 1/3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른 회원국도 해당 안에 구속되지 않는다.

EU,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오만, 케냐 등이 조치에 반대를 표명하였다. 해당 지역에 가공 시설을 보유한 타이유니온과 Princes도 반대 의사를 표하였다.

EU 선단을 대변하는 단체인 유럽어업인연합(이하 Europeche) 측은 30개 회원국 중 16개국만이 찬성하였다는 점을 들며,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 협상과 합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Europeche의 참치 그룹 책임자 Anne-France Mattlet은 FAD 선망어업이 문서화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 조치를 지지한 국가들이 과학적 자문을 무시하였다고 말하였다.

\* 출처: Atuna, UndercurrentNews, 2023년 3월 15일자

## EU, 인도양 dFAD 결의안 이의제기 검토 중 5월 IOTC 회의서 이의제기 및 수정 결의안 제출 검토

EU는 최근 승인된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의 부유형 FAD(이하, dFAD) 관리 결의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이하, EC)는 3월 29일 EU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에 이의제기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IOTC 결의안 23/02는 인도양에서 dFAD 등록이 의무화되고 72일간 인도양 dFAD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EU 이사회 문서에는 23/02 결의안에 대해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망선단에 불균형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과학적 자문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안서(non-paper)에는 “결의안 채택 방식은

중대한 관리 조치 결정이 합의도 없이 dFAD 사용 회원국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겼다.”라는 언급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서에 따르면 EU는 23/02 결의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모리셔스에서 개최 예정인 IOTC 회의에서 수정된 dFAD 관리 조치 채택을 제안해야 한다.

EC는 이의제기안과 병행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고 합의를 충족할 수 있는” dFAD 관련 제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문 및 IOTC 회의에 대비한 제안서를 EU 이사회 회원국에 제출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4월 10일자





## 스페인 선망협회, ICCAT 보존조치 비판

### 과학적 권고사항 및 자원상태 맞는 규정 적용 요구

스페인 선망선단 일부를 대변하는 스페인 대형냉동참치생산자연합(이하, OPAGAC)이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의 눈다랑어 보존조치를 비판하였다.

OPAGAC은 중앙아메리카지협수산양식부문기구(이하, OSPESCA)와 함께 2016~2022년 간 대서양 20개 선망선사 활동을 분석하여 ICCAT 규정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눈다랑어 조치 준수 결과, 감소 추세가 시작된 2018년 대비 선망 어획량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선박에 할당된 눈다랑어 TAC 8,344톤 중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TAC의 84%, 58%만이 어획되었다.

선사들은 보존 규정이 “눈다랑어 자원의 상당한 개선

및 어획량 감소를 지적한 ICCAT 과학위원회의 최신 자문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눈다랑어 TAC가 도입된 후 2021년부터 2022년 동안 선망어업 종사가 수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선망 어업의 추정치는 2020년 최대 추정치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어획 능력의 감소 가능성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 어획량이 더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어선들의 FAD 어업은 2017년부터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30%나 감소하였다. 한편, 스쿨조업 세트 수는 2016~2018년 사이에 증가했으며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3월 31일자

## ISSF, 참치 부문 보고서 발표

### 주요 23개 자원 중 8개 자원 MSC 첫 번째 원칙 부합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ISSF)의 다랑어 부문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상업용 다랑어 자원 23개 중 8개종만이 MSC 첫 번째 원칙, 즉 남획을 방지하고 목표 자원량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어종에는 서대서양 가다랑어, 북대서양 날개다랑어, 남대서양 날개다랑어, 동부 대서양 참다랑어, 서부 태평양 가다랑어, 동부 태평양 황다랑어, 동부 태평양 가다랑어, 인도양 가다랑어가 포함된다. 이 중 6개 자원은 어획량 관리 규칙을 완전 구현하였다.

대부분의 다랑어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는 어업 관리를 위한 MSC 세 번째 원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ISSF는 덧붙였다.

다랑어 RFMO 중 하나인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는 세 번째 원칙에 따라 7가지 성과 지표 모두에서 무조건적 합격 점수를 받았다. 다른 3개의 RFMO(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인도양다랑어위원회,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자로부터 전반적으로 원칙 수준의 합격 점수를 받았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3월 31일자



## EU 황다랑어, 가격 톤당 2,900 유로

### 어획량 감소로 소폭 상승

4월 유럽 황다랑어 가격은 톤당 2,900 유로 선인 것으로 전하여졌다.

이탈리아의 한 관계자는 이를 확인하며 황다랑어 가격이 “현재로서는 안정적”이라고 말하였다. 3월 말 스페인의 한 관계자는 스페인 황다랑어 가격이 톤당 2,850 유로라고 전하였다.

미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냉동 황다랑어가 3,500~3,600 유로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큰 어획물은 그 이상에 거래된다고 전하였다.

해당 관계자는 겨울과 연말연시 동안의 긴 휴여기를

마치고 가공업체가 봄, 여름용 가공 원어를 물색하기 시작하면서 선사들이 가격 상승을 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통조림 가격도 구매자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가공업체가 완제품 구매자에게 얼마나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하였다.

인도양 황다랑어 가격은 최근 몇 주 동안 톤당 2,450 유로 선을 견고하게 유지 중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4월 10일자

## 엘니뇨 ‘경계’ 상태 지속 예상

### 7월까지 계속되면 페루 EEZ 참치 어획 증가 예상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3월 스페인 황다랑어 가격은 톤당 2,800~2,850 유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의 한 참치캔 업체 소식통에 따르면, 3월 초 스페인에서 황다랑어는 톤당 약 2,800 유로에 거래되었다.

이탈리아 기반의 소식통은 이탈리아 황다랑어 가격이 현재 톤당 2,900~2,950 유로 선이라고 말하였다.

첫 번째 소식통은 황다랑어 가격이 근시일 내에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해당 소식통에 따

르면 참치 수요가 높은 여름철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황다랑어 수요가 아직까지 그리 높지 않았으나, 4~5월에 다시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두 번째 소식통은 “겨울과 연말연시까지 오랜 시장 휴면기가 끝난 후, 가공업자들이 원어를 찾기 시작하면서 가격 인상이 감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5일자



## 美 행정부, 태평양 대규모 보호구역 설정 제안 약 199만 km<sup>2</sup> 규모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 21일 지나 라이몬도(Gina Raimondo) 상무장관에게 약 77만 제곱마일(약 199만 km<sup>2</sup>) 규모의 보호구역 설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에 따라 라이몬도 장관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지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보호구역은 국립해양보호구역법(National Marine Sanctuaries Act)을 통해 태평양 도서(Pacific Remote Islands) 주변에 설정될 것이다. 이는 이른바 '30 by 30' 계획으로 불리는, 2030년까지 토지 및 수역 30%를 보호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약속 일환이다. 전체 보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보호구역이 될 것이며, 기존의 도서국 해양 국립기념물 및 '현재 보호되지 않는 해저 및 수역'을 포함할 예정이다.

보호 옹호론자들은 해당 수역이 여러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라며 이 노력을 지지하였다. Ed Case 하와이 하원의원, 하와이 환경보전위원회 Johnny Peters 전무 등이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서태평양 지역어업관리위원회(Western Pacific Regional Fishery Management Council, 이하, WPRFMC) 측은 어업이 금지된 해양 보호구역이 실제로 환경 보전에 유의미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신규 지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태평양커뮤니티(Pacific Community 이하, PC)의 John Hampton 수석과학자는 가다랑어와 눈다랑어의 분포가 광범위하고 이들의 유생(larvae) 또한 광범위하

게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수역 폐쇄는 보호 효과가 크지 않으며, 또한 특정 구역의 어업을 금지해도 어업 활동은 중단되거나 둔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동할 뿐이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SSC 위원 Ray Hilborn은 과거 해양 보호구역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결함이 있으며, 해양 어업 노력에 대해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Aumua Amata 아메리칸사모아 하원의원 또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Amata 의원은 "아메리칸사모아에 있어서 참치는 아이다호주(州)의 감자나 메인주(州)의 랍스터와 같은 존재이다. 참치가 없다면 우리의 경제와 정체성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감자 재배를 불법화하거나 알래스카와 콜로라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지역에서 랍스터 어획을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7만 7,000에이커가 넘는 참치 어장을 미국 어업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Amata 의원에 따르면 아메리칸사모아 수출 및 항만 활동의 80%는 4,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스타키스트 참치 통조림 공장에 기인하며, 이는 지방정부 다임가는 수준이다.

Amata 의원은 라이몬도 장관과 텡 헬랜드 내무장관에게 MPA 확장 반대 서한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3월 24일자,  
Atuna, 2023년 4월 3일자



## 美 FDA, 참치 수입 관련 규정 강화 계획 발표

### 검증 및 모니터링 과정 등 강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최근 미국으로 반입되는 참치 통조림, 로인 및 기타 어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수입 해산물 안전을 위한 활동(Activities for the Safety of Imported Seafood)’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FDA의 최신 접근 방식에는 새로운 도구를 기존 도구와 통합하고 이하의 네 가지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포함된다:

1.수입 식품은 미국 식품안전요건을 충족 2.안전하지 않은 식품 유입 방지를 위해 FDA 국경 감시 강화 3.안전하지 않은 수입 식품에 대한 신속, 효과적인 대응 4.효과적, 효율적 식품수입프로그램

FDA에 따르면 안전하지 않은 수산물은 검증, 강화된 규정 준수,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미국 내 반입이 금지된다.

\* 출처: Atuna, 2023년 3월 24일자

## 참치 처리 새로운 시설 오픈

### 기존의 일산화탄소 방식 아닌 새로운 공정

미국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Lotus Seafood社は 일산화탄소 방식이 아닌 항산화제를 사용해 자체 개발한 새로운 공정으로 처리한 제품을 미국 냉동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수산물의 영양 및 감각적 특성, 특히 색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왔다.

필렛을 일산화탄소로 처리하면 산화가 감소하여 필렛의 색이 선명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유통기한을 속일 수 있으므로 일본, EU 및 기타 국가에서는 금지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방법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으며, 일부 소매, 식품 체인은 처리된 제품의 구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Lotus Seafood社の CEO인 Nick Ovchinnikov는 로터스의 보존 방법에 대한 정확한 공식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개발하는 데 3년이 걸린 자신의 회사 프로세스는 다른 항산화제 중에서도 비타민 C를 사용한다고 말하였다.

Ovchinnikov는 일산화탄소 처리된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소매업체와 식품 서비스 사업자가 시장에서 격차를 보인다고 말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3월 27일자



## 참치 선망어선 EM 카메라 설치 표준 초안 발표

### 선망은 최소 4대, 연승은 최소 3대 설치 필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이행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참치 어선의 전자 모니터링(EM) 시스템 표준 초안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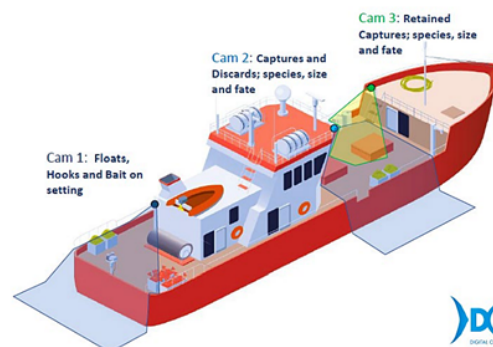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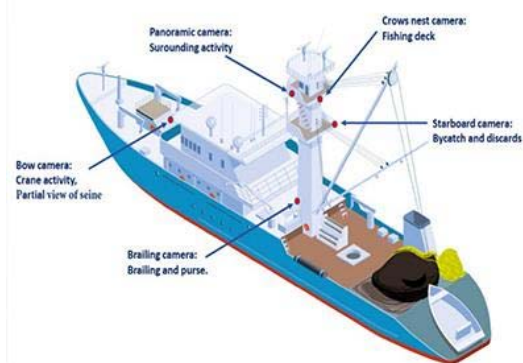
4월 30일부터 3일간 모리셔스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서 위원회는 회원들의 RFMO 규정 준수에 대한 모든 측면을 검토할 예정이다. EM은 논의 의제에 올라 있으며, 보고서 초안은 모든 장비가 제공된 기술 사양과 일치하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양 지역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표준이 없으므로 각 EM 설치선 선박 수준(24미터 이상)에 맞게 맞춤화해야 한다. 또한 선박 모니터링 계획을 통해 각 선박에 맞게 카메라와 센서의 수를 조정해야 한다. 선박 모니터링에는 최소한의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다음 작업을 녹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어획 세트, 양망, 투망, FAD 활동, 총어획량, 분류(어획물을 창고에 넣는 과정), 부산물 처리 및 방류, 참치 폐기 등이 포함된다. 대형 선망어선의 경우, 조업 및 참치 취급 작업을 촬영하기 위해 최소 6대의 카메라가 필요하다. 그

러나 300~400톤급의 소형 어선에서는 4대 정도의 카메라로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참치 연승어선(24미터 이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작업을 기록해야 한다. 연승의 어구 세팅, 미끼 유형 정보, 저감 기술 사용 여부(바닷새를 위한 토리 라인 등), 어구의 투·양승, 어획된 모든 어종(보유 및 폐기), 어획물의 사망, 표본의 크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 활동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3대의 카메라가 필요하다. 한 대는 어구를 설치할 때 이미지를 확인하고, 한 대는 어획물의 양승을 기록하고, 다른 한 대는 어종, 표본의 크기 및 사망을 기록하기 위해 처리 갑판 위에 장착해야 한다. 또한 IOTC는 선상에 반입되지 않고 버려지는 어종에 대해 주변을 감독할 수 있는 추가 장비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4일자





## “금어기, 선망선사 이익, 가공업체 손해” 연구 발표

### 동부태평양 참치 관리 조치 경제 효과 분석

올해 초 Fisheries Research 저널에 ‘에콰도르 만타의 하역 전 열대 참치 시장. 세계 참치 시장의 새로운 핵심 참여자(The ex-vessel market for tropical tuna in Manta, Ecuador. A new key player on the global tuna market)’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논문의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어획 시기 변화에 따른 하역 전 가격의 반응이 계절성을 띠고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이 질문은 veda(금어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우선 어종에 따른 선사 수입의 계절적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 모델 추산에 따르면 가장 많이 어획되는 어종인 가다랑어의 비용이 가장 높았으며(어선 총 수입의 39%), 가다랑어의 가치는 1분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황다랑어 가격(어선 총 수입의 8%)이 2분기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다는 계절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선망선사가 양도할 수 있는 조업일수제도에 따라 관리 연도 동안 자유

롭게 조업할 수 있다면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연구의 추산 결과 중 하나는 가공 산업의 원어 수요로 인해 가다랑어 수입량이 증가하면 에콰도르 국적 선망선에서 어획한 참치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선사, 선장, 선원, 선망어업 지원 기업 간의 이해관계는 가공업체, 공급망에 속한 기업, 수출업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후자 그룹은 수요 격차 해소를 위해 수입이 필요하며,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을 선호한다.

연구진은 분석을 통해 동부태평양 참치 관리 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상업적 의미를 지적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어획 감축 조치는 선사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역 산출량 감소를 동등한 양의 수입, 특히 가다랑어 수입으로 상쇄할 수 없다면 가공업자, 중계업자, 최종 소비자의 전반적인 경제적 후생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6일자

## 美 FMI, “2022년 수산물 매출 감소, 참치통조림 호조”

###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 감소

미국 식품산업협회(이하 FMI)가 3월 10일 발표한 ‘Power of Seafood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전체 수산물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참치통조림은 좋은 실적을 거뒀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수산물 매출액은 총 1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다. 2020년

매출액은 167억 달러, 2021년 매출액은 169억 달러였다. FMI의 Rick Stein 부사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단백질 식품으로 선회하면서 수산물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3월 15일자



## 에콰도르, 참치 수출 전년 대비 20.7% 감소

라니냐, 中 경쟁으로 타격

에콰도르 중앙은행(BCE)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금액 기준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20.7% 감소한 59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남아메리카 열대 서부 해안의 표층 해수 냉각을 설명하는 기후 패턴인 라니냐 현상은 2021년 말부터 에콰도르 참치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수확량은 감소하고 비용은 크게 상승하였다.

“수온이 1℃에서 2℃ 사이로 떨어지면 참치는 열대 해역에 익숙해져 이동한다.”라고 에콰도르 국립수산회 의소(CNP)의 Bruno Leone 회장이 말하였다.

또한 참치 수출량은 2022년 26만 7,495톤으로 2021년 수출량 27만 6,856톤에 비해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BCE 데이터는 밝혔다.

“또한 물고기가 따뜻한 물을 찾아 멀리 이동함에 따라 선박은 바다에서 더 많은 날을 보내야 한다.”라고 Leon은 지적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30~45일 동안 지속되는 조업 기간이 60~70일로 연장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선상 승무원의 연료 및 음식 등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인해 생산 비용이 15%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EU의 수요는 2017년 13만 5,000톤에서 16만 3,000톤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 증가는 주로 중국이 흡수하였으며, 중국의 참치 로인 수출은 2017년에 1만 4,000톤에서 3만 2,300톤으로 증가하였다.”라고 Ecuador Pesquero에서 발행된 보고서에서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3월 24일자

## 日 마루하니치로, 참치 사업 확대 발표

자회사 가다랑어·황다랑어 어업 MSC 인증 추진

일본 수산 대기업 마루하니치로(マルハニチロ)가 참치 가공회사 마린엑세스(マリンアクセス)社の 지분 보유를 확대하여 자회사인 마루하니치로 리테일과 완전 통합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통합은 내년 4월 1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치를 중심으로 한 사업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으로 관측된다.

마린엑세스는 참치를 주로 하는 수산물의 조달, 회제품 등의 가공, 냉동보관, 판매까지 일련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마루하니치로 리테일 서비스 또한 생식용 참치를 주로 하는 수산물의 조달·가공·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리협의회(MSC) 발표에 따르면 마루하니치로의 자회사인 Taiyo A&F Co.(TAFCO)가 가다랑어, 황다랑어 선망어업 인증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대상은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3척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3월 15일자



## Bumble Bee社, '공정하고 안전한 공급망' 주장 삭제 강제노동 관련 소송 합의 일환

참치 대기업 Bumble Bee社가 '공정하고 안전한 공급망' 및 '공정하고 책임있는 근무 조건'을 포함하여 어업 관행 및 근무 조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웹사이트, SNS 및 기타 광고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마케팅 관련 소송 합의의 일환이다.

국제 노동인권 NGO인 GLJ-ILRF는 Bumble Bee社가 원양어업 부문에서 노동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던 이력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Bumble Bee社는 논란의 문구를 10년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3월 24일자

## 中 선전시, 참치 프로젝트 개시 연승선 2척 참치 327톤 양륙

중국 연승선 2척이 지난 3월 21일 중국 Dachan항에 도착하여 참치 327톤을 하역하였다.

2022년 선전시 당국은 Dachan항 국제 참치무역센터 건설 계획을 확정하였다. 2025년까지 완공 예

정인 이 프로젝트는 선전시의 현대식 수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고급 수산물 보관, 거래, 전시, 레스토랑, 관광 시설 등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 출처: Atuna, 2023년 3월 30일자

## 아르헨티나 참치 통조림 가격, 작년부터 급등 2031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5.13kg 예상

아르헨티나 기업가 단체 Acipan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참치 통조림 가격이 작년에 비해 248% 인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르헨티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100%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다.

참치 통조림 제품의 가격은 1년 만에 258 페소(1.23 달러)에서 898 페소(4.27 달러)로 상승하였다.

대변인은 주로 외환 시장의 왜곡을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 아르헨티나 1페소 환율은 0.005 달러이다.

아르헨티나의 1인당 참치 및 수산물 소비량은 향후 몇 년 내에 0.9kg(-14.9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2031년에는 1인당 5.13kg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Atuna, 2023년 4월 5일자





## 포클랜드, 2022년 어획량 지난 10년 평균 상회

2022년 약 25만톤...오징어 대부분

2022년 포클랜드의 총어획량은 24만 6,135톤으로 지난해 33만 5,945톤 대비 9만 810톤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10년 평균 어획량 보다 약 5만톤이 더 많은 양으로 이중 오징어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대부분 (70.8%)을 차지하였다.

월별 어획량을 비교할 때 3월에 가장 많은 어획을 하여 8만 468톤을 어획하여 전체 어획량의 33%를 3월에 조업하였다.

국가별 연도별 어획량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1999년 에 20만 7,795톤을 어획하여 포클랜드 전체 어획량의 55% 어획하였으나, 2022년에는 2만 158톤을 어획하

여 전체 어획량의 8%를 어획하였다. 이와 관련, 대만의 경우 같은 해인 1999년 8,771톤을 어획하여 포클랜드 전체 어획량의 2%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4만 9,376톤을 어획하여 전체 어획량의 20%를 어획하였다

조업허가척수는 2005년에 우리나라가 43척 조업에서 2022년에는 31척이 조업허가를 취득하여 28% 감소하였다. 이와 관련, 대만의 경우 같은 해인 2005년 34척의 조업허가척수에서 2022년에 71척으로 증가하여 109% 증가하였다.

\* 출처: 포클랜드수산청, 2023년 3월 23일자

## 어획 부진으로 2023년 일렉스오징어 가격 상승 예상

2월~3월 초 일일 10~15톤 어획

아르헨티나 오징어산업협회(CAPA)의 Juan Redini 회장은 72척의 오징어선단 중 37척이 조업하고 있으나 하루 어획량은 많아야 10~15톤이라고 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일렉스 오징어 조업은 1월 둘째 주에 시작되었다. 'Agroindustria'의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조업선은 2023년 첫 두 달 동안 4만 2,796톤의 일렉스 오징어를 어획하였으나 이는 지난해 대비 7% 감소한 양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다. 협회장에 따르면 표준 온도보다 약 3°C 높은 수온이

오징어를 더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언더커런트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중국 항구의 300g~400g 라운드 일렉스 오징어 가격은 톤당 2만 7,000 위안(\$3,929)에서 2만 7,750 위안(\$4,038) 사이를 오가고 있다. 최근 보스턴 쇼가 시작될 때 중국 내 가격은 톤당 27,400위안이었다. 이는 2020년 초 동일한 사양의 일렉스 오징어 최고가인 톤당 3만 7,000위안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3월 20일자



## 2022년 日 오징어 총공급량 4% 증가

### 자국 어획량 감소했으나 수입량 증가

일본 JF전어련(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오징어류 총 공급량(국내생산, 수입, 기말 재고량 합계)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18만 5,580톤이다. 살오징어와 빨강오징어 어획량은 감소하였으나 수입량은 증가하였다.

수입량은 15% 증가한 11만 560톤으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10만톤을 넘어섰다. 전어련 담당자는 “국내 살오징어 어획량은 2년 연속 좋지 못했고, 원료 가격은 급등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오징어류의 일본 자국 생산량(선어, 냉동 합계)은 11% 감소한 2만 5,020톤이었다. 같은 기간 자국 살오

징어 생산량은 10% 감소한 2만 2,120톤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 중 선어는 1% 증가한 1만 7,670톤을 기록하였다. 한편 전년도 호황이었던 냉동은 출어 척수 감소 영향으로 38% 감소한 4,450톤에 그쳤다.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또한 조업척수 감소로 인해 21% 감소한 2,900톤을 기록하였다.

내수, 수출을 합친 총수요량은 5% 증가한 13만 5,580톤이다. 이 중 수출은 39% 감소한 1,880톤, 내수는 6% 증가한 13만 3,700톤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3월 30일자



## 아르헨티나 2023년 1월 오징어 수출 증가

### 평균 수출 단가 17% 하락

아르헨티나 농림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23년 1월 수산물 수출량은 2만 3,468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1억 340만 달러로 2% 감소하였다.

아르헨티나의 2023년 1월 오징어 수출량은 898

톤으로 47% 증가했고, 수출액은 180만 달러로 24% 증가하였다. 반면 평균 수출 단가는 kg당 1.99 달러, 톤당 1,992.1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3월 15일자



## 러-중간 2023년 어업분야 협력 계획 확정

3월 7일부터 3월 10일간 제31차 러중어업위원회 개최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10일간 제31차 러-중어업위원회가 주하이시(중국 관동성)에서 개최되었다.

러시아 측은 해양생물자원 및 제품의 어획물 원산지 적법성을 확인하는 전자 인증 프로젝트의 개발 및 구현에 대해 알렸다. 이 메커니즘은 러시아 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절차를 단순화할 것이다.

공동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되었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교류는 1988년 10월 4일자 어업분야 협력에 관한 소련 정부와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1994년 5월 27일자 아무르 및 우수리 국경수역의 생물 자원 보호, 규제 및 번식 분야 협력에 관한 러시아연방 정부와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그리고 2012년 12월 6일자 러시아연방 정부와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간의 IUU 어업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산 명태의 중국 수출을 중단 없이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명태협회장(Aleksey Buglak)이 말하였다.

중국과의 협력은 특히 제재 "흔들림"을 고려할 때 러시아 어류 수출에 중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협회 회장은 강조하였다. 협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이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 관계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3년 3월 15일자.  
FISHNEWS, 2023년 3월 21일자

## 러, 4월 초까지 어획량 11% 증가

명태 92만 5,700톤 어획

어업 및 통신 모니터링시스템(CFMC)에 따르면 러시아 어민들은 4월 5일까지 148만 톤 이상을 어획하였으며, 이는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이다.

극동 수역 총어획량은 118만 톤으로 작년보다 12% 증가하였다. 명태는 10만 7,600톤이 더 많은 92만

5,700톤을 생산하였다. 대구는 2천톤이 증가한 4만 6,300톤, 청어는 1만 6,300톤 증가한 13만 7,000톤, 가자미는 2,400톤 증가한 1만 8천 톤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국제 협약 지역에서 러시아 조업선의 어획량은 10만 2,600톤이었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3년 4월 5일자



## 러 어업인, 선단 갱신을 위해 단결

2027년까지 105척 신조 예정, 수산물 가공비중 30% 달성

현재 선박 건조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60% 이상은 어선 선주 협회 회원들이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협회 회원사의 총주문량은 10척의 대형 트롤어선, 13척의 대형 어선 및 16척의 중형 어선이다. 이는 투자 쿼터 첫 단계에서 계획된 선박 총수의 1/3이 넘는 수치이다. 이들 선박 건조에 대한 투자는 러시아 신조 건설에 대한 업계 투자액의 60%를 초과한다.

투자자의 전략은 노후화가 심각한 선박의 신조를 기반으로 한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교체하지 않으면 국제 협약에 따른 해양에서의 어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어자원 생산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새로운 선박은 안전한 항해와 조업, 높은 생산량을 의미한다. 최신 슈퍼 트롤 어선의 연간 명태 어획량은 6만 톤으로 구형 선박의 두 배에 달한다. 하지만 어획량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대식 가공 선박은 어획뿐만 아니

라 어획물을 바로 필렛, 민스, 연육으로 가공하는 떠다니는 공장과도 같다.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바다에 버려지지" 않는다. 해안에서 동물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어분과 건강 보조 식품에 사용되는 어유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가공 비중은 2017년 17%에서 2022년 30%로 증가하였다. 미국 어민은 어획량의 90% 이상을 가공한다.

처음으로 이러한 제품의 국내 소비가 증가하였다. 지난 4년간 러시아 소비자에게 다진 명태 공급은 4.6배 증가하였다. 필렛 공급은 13% 증가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명태 제품 수입은 제로 수준으로 줄었다.

\* 출처: Rossiyskaya Gazeta,  
러연방수산청, 2023년 3월 3일자

## 러, 명태·대구 등 저차가공품 수출 제한 검토

러시아, 명태·대구 등 저차가공품 수출 제한 검토

다수 러시아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가공도가 낮은 수산물 제품의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 제한을 통하여 러시아 국내 가공업자에 대한 공급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2월 초순 러시아 부총리 주재 회의 기록에 따르면, 부총리는 러시아 농업부 및 관계 부처에 수출 제한의 타당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농업부는 행정

당국이나 업계와 함께 합의한 제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러시아 매체 INFOLINE에 따르면, 제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은 선어이다. 인터팩스 통신에 따르면 명태, 대구, 청어 등의 수산물을 염두에 두고 이익률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3월 13일자



## 러, 2024년 어획 전망과 기회에 대해 논의

2024년 TAC, 2023년 대비 3% 증가 예상

러시아 수역의 총 330만 톤 이상의 해양 생물 자원은 2024년에 2023년보다 3% 더 많은 총허용어획량(TAC)이 설정될 것으로 권장된다.

TAC의 90% 이상이 극동 어업 구역에, 북부와 서부 구역에 각각 2%, 나머지 구역에는 1% 이하가 할당된다.

“극동 지역의 명태 총허용어획량을 220만 톤으로 늘릴 기회가 있다.”라고 수산청장은 말하였다.

또한 2024년 청어 TAC를 2023년에 비해 8% 늘릴 것

을 제안하였다. 청어 자원의 주요 성장은 북 오호츠크해 및 카라긴스카야 수역에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자원 기반 상태에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TAC에서 개발된 대부분의 자원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수산청장은 2024년에 투자 할당량의 첫 번째 단계 이행을 통해 건설되는 새로운 선박과 가공 시설을 도입하면 자원 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출처: FISHNET, 2023년 3월 23일자

## 러 수산청, 오호츠크 어기 마지막 회의 개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어획량 증가, 냉동창고 활용률 감소

올해 4월 4일까지 극동 수역 명태 어획량은 92만 6,000톤으로 전년 대비 10만 7,600톤(13%) 증가하였다. 오호츠크해 생산량은 78만 6,000톤을 기록하였다. 태평양 청어 어획량은 13.5% 증가한 13만 7,000톤, 대구 어획량은 4.5% 증가한 4만 6,300톤이었다.

현재 오호츠크해에는 트롤어선 89척과 모선 1척이 명태와 청어 조업을 하고 있다. 최대 5척의 조업선과 1척의 어획물수취선이 명태를 부수어획으로 하는 저층어업을 하며, 최대 4척의 선박이 주기적으로 북쿠릴을 출항하여 명태를 부수어획하는 저층어업을 한다.

보고기간 동안 북쿠릴열도에서는 2척의 운반선이 활동하였다.

북 오호츠크해 하부 수역의 청어 어업 선박 수는 계

속 증가하여 현재 41척의 대형 어선과 2척의 중형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57만 3,000톤의 어획량(주로 명태, 청어 및 대구)을 선적한 37척의 선박이 연해주 항구(주요 물류 허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해주의 평균 냉동창고 활용률은 지난해 52% 대비 현재 23%이다.

4월 1일, 서캅차카 및 캅차카-쿠릴 하부 수역의 명태 트롤 조업은 종료되었다. 4월 10일부터 북오호츠크해 하부 수역의 조업도 종료된다. 이번 시즌 명태 어획 환경은 조업 모든 지역에서 양호하였으며 전체 어획량도 증가하였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3년 4월 4일자



## 러, 어류 소비 증대 계획 포기 구매력 감소로 더 저렴한 단백질로 전환

농업부는 러시아에서 어류 소비를 1인당 연간 25kg (현재 22.6kg에서)으로 늘리려는 목표를 국가 프로그램에서 제거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어류 및 어류 제품 소비량은 1인당 22.6kg이라고 농업부는 밝혔다. 그리고 보건부는 1년에 22kg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2022년 러시아의 어류 자급률은 153.3%이었다.

러 통계청에 따르면 2013~2014년 1인당 어류 소비량은 22.3kg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소비에트 시대보다 더 많은 양이라고 전러시아 어업생산자협회(VARPE)의 회장은 말하였다. 하지만 소비는 감소 중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계산은 정확하지 않다고 농업 및 식

품 커뮤니케이션의 매니징 파트너는 말하였다. 우리는 어류의 꼬리, 머리, 내장을 먹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실제 소비량은 1인당 연간 약 14~16kg의 어류와 해산물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일본에서는 1인당 연간 50kg 이상의 어류를 섭취하는 등 많은 이웃 국가에 비해 훨씬 적다.

제한된 구매력을 감안할 때 인구는 더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인 닭고기로 전환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닭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구매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인 닭고기를 선택하고 있다.

\* 출처: Rossiyskaya Gazeta, 2023년 3월 22일자

## 美, 알래스카명태 자국 필렛 공급량 30% 증가 2월 시점 5만 9,000톤 공급

미국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에 따르면 2023년 2월 19일 시점 미국 알래스카의 자국 소비용 명태 필렛 공급량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30% 증가한 5만 9,000톤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GAPP의 Craig Morris CEO는 수요 증가의 부분적 원인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알래스카명태의 인지도 및 긍정적 이미지가 증대되어 경쟁 품목과의 격차를 좁혔다는 점이라고 설명하였다.

알래스카 명태의 미국 국내 수요는 최근 수년간 미국 패스트푸드 식당의 구매 증가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영국 수산물회사 Young's Seafood의 모기업 Sofina의 Andrew Allchurch 구매부장은 알래스카명태의 영국 내 소매 판매량이 대구를 추월했으며 2024년에는 판매 1위 어종인 연어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3월 14일자



## 英 2022년 러시아산 흰살생선 수입 급감

### 대구, 해덕 대안으로 명태 수입 급증

영국이 지난 7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산 흰살생선에 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해당 조치의 영향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영국 무역 연구기관인 Seafish의 새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영국이 수입한 러시아산 흰살생선의 양은 2021년 대비 21% 감소하였다.

Seafish에 따르면 영국의 2022년 대구, 해덕대구, 명태 수입량의 약 절반이 노르웨이산과 중국산이며, 양국 모두 2021년 대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반면 러시아산 직접 수입량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8%에 불과하였다.

2022년 12월 한 달 동안 러시아산 흰살생선 수입량은 12.7톤으로, 2021년 동월 대비 99% 감소하였다.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흰살생선 수입 비용을 제외하고 kg당 평균 6.61 파운드(약 8.10 달러)였다. Seafish에 따르면, 관세로 인해 kg당 2.31 파운드(2.80 달러)가 추가되면서, 러시아산 흰살생선 수입비용은 kg당 8.92 파운드(약 10.90 달러)로 주요 공급국 중 가장 비싸다.

한편, 2022년 영국의 명태 수입량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2만 5,954톤이며, 수입액은 71% 급증한 8,850만 파운드(약 1억 8,85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Cooper 연구원은 “명태는 흰살생선 3종 중 가장 저렴한 선택지이며, 대구 및 해덕대구 수입량 감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3월 31일자

## 벨라루스, 극동에서 처음으로 어획 시작

### 러시아-벨라루스 합작 기업이 올해 극동 지역에서 조업 예정

2002년 3월 13일자 양국 정부 간 어업협정에 따라 벨라루스 공화국에 명태 쿼터 할당을 근거로 어업이 시작된다. 할당량은 2022년 12월 9일 러시아-벨라루스 간 제20차 어업위원회 의정서에 근거한다.

러연방수산청의 연해주지부는 이미 북오호츠크

해 하부 수역에 대한 5건의 허가장을 발급하였다.

벨라루스의 명태 쿼터량은 서베링해 하부 수역에서 3만톤, 북오호츠크해 1만톤, 캄차카-쿠릴 및 서 캄차카 하부 수역에서 5,000톤이다.

\* 출처: Rossiyskaya Gazeta, 2023년 3월 31일자



## 한국, 러시아산 어류 공급량 감소

명태 5만 2,375톤 수입

한국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러시아에서 10만 7,113톤의 수산물을 수입하였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의 13만 6,169톤보다 21% 감소한 수치이다.

가장 많이 수입된 냉동 명태는 5만 2,375톤으로 2022년의 8만 2,852톤에 비해 37% 감소하였다.

냉동 청어는 1만 2,647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만 3,023톤보다 3% 감소하였다.

냉동 핑크 연어는 58톤이 수입되어 2022년의 1만 3,023톤보다 많이 감소하였다.

냉동 대구도 4,873톤으로 10% 감소하였다.

그러나 냉동 정어리 수입량은 2022년 2,055톤에서 올

해 9,265톤으로 351% 증가하며 크게 늘었다.

주요 어종의 평균 수입 단가는 다음과 같다: 냉동 명태 1.03달러/kg로 10% 하락, 냉동 청어는 0.78달러/kg로 34% 하락하였으며, 냉동 정어리 및 냉동 대구는 각각 0.49달러/kg, 4.25달러/kg을 기록하였다.

2023년 1분기 러시아 수산물 수입액은 3억 3,320만 달러로 2022년 3억 4,979만 달러 대비 13% 감소했지만, 평균 단가는 10.2% 상승한 2.83달러/kg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총수입량 31만 7,361톤 중 34%는 러시아산 수산물이었다.

\* 출처: Fishnet, 2023년 4월 6일자



## Peter Savchuk, 러 수산청 부청장직에서 해임

2015년부터 부청장직 수행

2023년 4월 6일자 정부 법령 836호에 따라 러 연방수산청 경영진의 인사 개편이 이뤄졌다.

관련 문서에서는 "그의 요청에 따라 러연방수산청 부청장직에서 Peter Stepanovich Savchuk

을 해임한다."라고 작성되어있다.

Peter Savchuk측은 오랫동안 어업 운영, 항만 인프라, 선단 및 과학 조직을 감독하여 왔다.

\* 출처: FISHNEWS, 2023년 4월 12일자





## 러, 내수 시장으로 가는 생선

### 연해주 생선 저장 시설은 73% 여유

3월 20일 현재 연해주 내 수산물 저온 저장 시설의 총 가동률은 27.2%이다. 수산 터미널에는 3만 5,200톤의 신선 냉동 수산물이 보관되어 있다.

러연방수산청 중앙지부의 정보에 따르면 극동 지역의 3월 중순 총어획량은 거의 88만 7,400톤으로 작년보다 14% 증가하였다. 이 중 명태는 71만 1,100톤, 대구 3만 6,500톤, 청어 8만 2,300톤을 어획하였다.

수산청 연해주지부에 따르면 연해주 어민들은 명태 약 14만 톤, 청어 24만 4천 톤, 대구 3만 5천 톤 등 17만 2천 9천 톤의 해양생물자원을 어획하였으며, 17척의 대형 선박을 포함하여 80척의 선박이 조업 중이다.

모니터링시스템센터에 따르면 3만 5,600톤의 어획량을 선적한 29척의 선박이 연해주 항구로 접근 중이며,

대부분은 신선 냉동 명태(3만 2,400톤), 청어(110톤) 및 대구(1,300톤)이다.

극동 러시아철도社の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연해주에서 철도로 운송된 수산물은 12만 2,500톤으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하였다. 이 중 컨테이너에 담긴 수산물은 7만 7,700톤에 달하였다.

연해주연방수산청은 극동 어민, 항만 및 운송 및 물류 구조가 고품질 수산물의 국내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국가 전체와 특히 지역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며, “국제 협력 및 수출” 국가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고 말하였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3년 3월 20일자

## 러 조선소, 40억 달러의 투자 쿼터 계획

### 5년 내 41척 신조 계획 지연

1단계 투자 쿼터 계획은 2017년 러시아 조선소에 새 어선 신조와 자국 내 가공공장 건설 의무에 따라 청어와 명태 총어획허용량(TAC)의 20%를 사업자에게 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투자 쿼터제도의 2단계는 2023으로 극동 지역 명태와 청어 TAC의 20%와 게 쿼터의 나머지 50%를 경매에서 분배할 계획이다.

러시아 정부는 2023년 8월 혹은 9월에 2차 투자 쿼터 제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수산청장은 말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 경매는 1,400억 루블을 청어와 명태 경매는 1,600억 루블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2월 24일자



## NPFC 회의 결과 공치 공해 TAC 24% 감축

2023년, 2024년 15만톤

지난 24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 제7회 연례회의에서, 공해에서의 공치 TAC를 현행 19만 8,000톤에서 2023년, 2024년에 15만톤으로 약 24% 삭감하는 조치에 9개국 및 지역이 합의하였다.

연안국인 일본과 러시아는 EEZ 내에서 양국 합산 어획량 상한을 현행 13만 5,750톤에서 10만톤 이내로 억제한다. 공해와 EEZ를 합친 전체 분포구역의 연간 어획량은 현행 33만 3,750톤에서 25만톤 이내로 억제한다. 현행 TAC 및 연간 어획량 억제 목표치는 2021년 2월 제6차 연례회의에서 결정되어 2021년, 2022년 적용되었다.

NPFC에 참여 중인 9개국 및 지역의 공치 어획량은 2021년 9만 2,206톤으로, 최초로 10만톤 미만을 기록하였다. 2022년의 보고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나, 일본 측에 따르면 '2021년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여전히 심각한 어획 부진이 진행 중이다.

일본 측은 자원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중국, 대만 등 공해의 어획 압력이 높아진 것이며, 최근에는 일본, 러시아 EEZ 내의 어획량도 감소 중이기 때문에 공해 TAC 설정을 10만 1,000톤으로 제안하였으나, 타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15만톤으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3월 27일자

## 日 '22년 12월 냉동 공치 재고 6,958톤

연말 재고 2년 연속 7,000톤 미만

일본 농림수산성의 냉동수산물 재고량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국 주요 냉동저장고 2022년 12월 시점 공치 재고는 6,958톤을 기록하였다. 12월

일본 국내 어획량은 41톤에 그쳤으나 대만산 수입량이 증가하여 재고량은 4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3월 16일자

구분	월말 재고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2	7,003	6,552	5,730	5,668	5,296	5,006
2021	8,749	11,398	11,028	10,236	9,559	7,804
2020	14,228	12,950	11,891	10,601	9,902	7,893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5,388	3,866	4,182	4,947	6,647	6,958
2021	6,977	9,193	5,759	5,577	7,302	6,986
2020	7,270	6,900	6,089	6,994	8,987	9,248



## 日 연구기관 “꽂치 어획 감소, 해양 환경 변화 원인”

### 환경 변화가 부정적인 연쇄 반응 초래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水産研究・教育機構)는 지난 4월 7일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꽂치 어업 부진 원인 규명에 관한 연구 성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수온 상승 경쟁 어종 증가, 연안에서 꽂치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의 감소, 그리고 먹이 부족으로 인해 어체가 성장하지 않으면서 산란 및 치어 탄생이 감소하는 등의 환경적 요인을 자원 악화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해설을 담당한 일본 수산자원연구센터의 니시다 히로시 센터장은 오야시오 해류(親潮海流, 베링 해에서 시작해서, 캄차카 반도, 북해도를 거쳐 태평양을 반시계방향, 즉 남서쪽으로 흐르는 한류)의 흐름이 도토(道東, 홋카이도 동쪽) 근해에서 멀어졌고, 먹이 생물의 감소가 근해뿐만 아니라 연안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니시다 센터장은 또한 혼슈(本州, 도쿄 등이 포함된 일본 열도 최대의 섬) 동쪽의 쿠로시오 해류(黒潮海流, 태평양의

해류 가운데 북서안을 시계방향으로 도는 난류)의 굴곡진 흐름이 최근 수년간 적어지면서, 치어가 성장에 적합한 먹이가 많은 근해로 복상하지 못하고 동쪽으로 흘러들기 쉬워졌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설명하였다.

센터장은 또한 최근 꽂치 산란장에서 해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알에서 태어난 치어들이 먹이가 풍부하고 생존에 유리한 바다로 흘러가기 어려워졌다고 추정하였다. 센터장은 산란량이 감소하고 부화 후 생존율도 악화하면서 자원 전체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니시다 센터장은 아울러 근해 정어리 자원 증가가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구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원을 크게 회복하기 어려우며, 어획량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마나토신문, 2023년 4월 10일자





## 아르헨티나, 남조지아 제도에서 어업 연구 완료 CCAMLR 이빨고기 개체군 정보 제공

남대서양에서 남조지아 제도 주변의 해양 어업 시나리오를 추가로 탐색하기 위한 연구 탐험이 이 지역의 "극단적인" 기상, 환경 및 지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게" 끝났다고 아르헨티나 외무부와 과학기술혁신부(MINCyT)가 이번 주에 발표하였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성명에서 "남조지아 제도에서 어린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및 기타 저서 어종의 풍부함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 수산 연구 개발 연구소(Inidep)의 해양 어업 연구선(BIPO) Victor Angelescu를 타고 2월 27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Inidep과 아르헨티나 남극연구소(IAA)의 전문가들은 어류나 저서 무척추동물 군집, 동물성 플랑크톤, 박테리아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등 남극 아남극 대륙

붕 생태계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이 지역에 서식하는 종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강화하고, CCAMLR의 규제를 받는 사우스조지아의 파타고니아 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 어업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어류 개체군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하였다.

이번 탐사는 외교부와 과학부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과학부가 후원하는 국가 해양 정책에 따라 경제부 농축수산물수산물국도 Inidep을 통해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아르헨티나가 창립 당사국으로 가입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의 틀 안에서 진행되었다.

\* 출처: MercoPress, 2023년 4월 7일자

## 리퍼 컨테이너 운임, 팬데믹 이전 수준 근접 전문가 "팬데믹 이전보다 하락하진 않을 것" 예상

유럽, 북미, 극동을 연결하는 노선의 리퍼 컨테이너(reefer container) 운임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리퍼 물류업체 Easyfresh의 Rafael Llerena CEO에 따르면, 극동에서 북유럽으로 향하는 리퍼 현물 운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근접하였다. 1962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냉장 운송 부문 컨설팅 기업 Eskesen Advisory의 북미 자문 William Duggan은 유럽행 동서항로뿐만 아니라 미국행 동서항로에서도 과용량(overcapacity)으로 인해 리퍼 운임이 낮아졌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Duggan은 이미 경쟁이 상당하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 수준인 현재에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3월 14일자



## WTO 회원국, 수산 보조금 후속 협상 개시

### 남획 기여 보조금 및 개도국·최빈국 예외 규정 주요 의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가들이 전 세계 바다에서 과잉 어획, 남획 등을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정 설정이라는 복잡한 문제로 되돌아왔다.

협상가들은 유해 수산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규제하는 작년 WTO 협정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3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3월 10일 기준 지금까지 협정을 비준한 국가는 단 3개국에 불과하며,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 중 2/3가 협정을 공식적으로 수락해야 한다.

협상의 핵심은 과잉 어획, 남획에 기여하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라는 복잡한 문제도 논의

될 예정이다. 협상에서 다뤄질 다른 이슈로는 타국 국적으로 조업하는 선박에 대한 보조금 및 WTO 회원국 관할권 밖에서 조업하는 선박에 대한 보조금 관련 규정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어업 강제 노동과 관련하여 투명성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길 원한다. 일부 WTO 회원국은 어업에 국한되지 않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 어업계를 대변하는 유럽어업인연합(이하 Europêche)은 좋은 관리 관행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와 함께 유류세 감면 제도를 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 출처: MercoPress, 2023년 4월 7일자

## 美 수산물 매출, 식품 지원 기금 종료로 위축 예상

### SNAP 코로나19 기금 종료로 인해 구매력 타격

이미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미국 수산물 매출이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이하, SNAP) 혜택 종료로 인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SNAP는 미국의 저소득층 식생활 향상을 위해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제공된 팬데믹 관련 긴급 자금 지원은 3월 들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종료되었다. 데이터 및 시장조사 기업 Numerator의 보고

서에 따르면, 긴급 지원금의 종료는 소비자 1인당 약 20% 감소인 약 400억 달러의 손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4,100만 명의 미국인이 SNAP 수혜자이며, 이들은 전체 소비 지출의 약 24%를 차지한다. SNAP 수혜자가 혜택을 활용하면 쇼핑 당 식료품 지출은 약 18 달러 증가한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3월 30일자



## FAO 2021년 세계 어업·양식 생산량 발표

### 전년 대비 생산량 2% 증가

UN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21년 세계 어업·양식 생산량(추정치 포함)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억 1,800만톤이다.

총 생산량 상위 3개국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위 중국, 2위 인도네시아, 3위 인도였다. 중국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8,595만톤, 인도네시아는 전년 대비 거의 동일한 2,181만톤, 인도는 9% 증가한 1,443만톤을 기록하였다.

한편, 일본의 생산량은 3% 감소한 411만톤을 기록하였다. 일본은 노르웨이와 필리핀에 추월당하여 1950년 이후 최초로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9,200만톤이다.

어업 생산량은 최근 수년간 9,000만톤 전후를 기록하는 추세이다. 1위 중국은 2% 감소한 1,300만톤, 2위 인도네시아는 4% 증가한 720만톤, 3위 페루는 16% 증가한 660만톤이다.

어종별 어업 생산량은 1위인 멸치가 20% 증가한 590만톤, 2위인 명태가 2% 감소한 350만톤, 3위 가다랑어가 1% 증가한 280만톤을 기록하였다.

세계 양식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1억 2,600만톤이다. 양식 생산량 상위 3개국은 총 생산량 상위 3개국과 같다. 세계 양식 생산량은 1962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4월 6일자

## 日 기업, AI로 수산물 이물질 검출 기술 실험

### SNAP 코로나19 기금 종료로 인해 구매력 타격

일본 IT기업 YE디지털社가 인공지능(이하, AI)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이물질을 검출하는 기술의 실증 실험을 진행 중이다. 수산가공업계가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고심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기반 도입이 실현되면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검사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업은 AI를 활용한 화상 판별 서비스 'MMEye'를 개발하였다. 사람이 하던 불량품이나 이물질 판별을 자동, 고속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MMEye'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식품의 구운 색을 어느 정도까지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와 같은 섬세한 판단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주로 식품 제조업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수산 관련 도입 실적은 없으나, 해당 기업은 여러 실증 실험을 진행 중이다. 멸치 출하 검사에서 낚시줄, 담배 등의 이물질을 검출하거나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생선 뼈를 검출하는 등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4월 4일자



## RFMO 회의 공개 액세스 요구 프로젝트 추진 중 NGO 등 타 이해관계자 참여 권한 증대 요구

최근 등장한 ‘평등접근원칙(Equal Access Principles)’이라는 운동이 참치업계 이해관계자에게 12가지 기본 원칙 지지를 촉구하고, 투명성을 위해 참치업계 이외의 당사자들이 RFMO 회의에 더 많이 공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주장하는 12가지 원칙은 참치업계 이외의 이해관계자가 RFMO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원칙은 조약 전문 법률가와 여러 글로벌 파트너가 공동 개발하였으며, 타 다자 기구 및 조약에서 준수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12가지 원칙의 내용은 이하와 같다.

1. 본회의 및 총회 등을 공개할 것(언론 포함)
2. 모든 부속 회의에서 승인된 참관인을 허용할 것
3. 부속 회의에서 모든 종류의 RFMO 공식언어 사용을 의무화할 것
4. 이해관계자 참관인 및 참석자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해석하여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5. NGO, 시장,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 간 동등한 대

우를 의무화하고 국가 간 조정, 총회, 부속 회의에서 대표단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보장할 것

6.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해 포괄적인 인증 및 참여 규칙을 제정하고 모든 RFMO에 표준화할 것

7. 내용 검토 과정 없이 서면 증언 및 자료 제출에 대한 명확하고 공개적인 지침을 시행할 것

8. 참관인의 구두진술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없애고, 심의 이후가 아닌 심의 과정 중에 구두진술을 할 수 있게 할 것

9.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관인의 기여를 인정하고 포함할 것

10. 관련 전문 지식 또는 현장 지식을 보유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동반 활동을 촉진할 것

11. 회의 장소 및 참가비를 모든 참석자에게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책정할 것

12. 한 회의를 건너뛰어도 이해관계자의 참관인 지위를 유지할 것

\* 출처: Atuna, 2023년 3월 21일자

## 아르헨티나 연육 공급업체, 트롤 어선 업그레이드 계획 올해 말 노르웨이에서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

아르헨티나 트롤 공모선 ‘Centurion Del Atlantico’가 새로운 추진 시스템과 연육 시설로 구성된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주사인 Estremar Argentina社가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추진 및 발전 시스템을 교체하여

118.5미터 길이 연육 생산 선박의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일 것이다.

이 선박은 6월 개조를 위해 노르웨이 조선소로 출발하여 2024년 중반 아르헨티나로 복귀 예정이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3월 30일자



## 中, 2022년 수산물 수입 190억 달러로 급증 수입량 21% 증가한 419만톤

중국의 수산물 수입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35% 증가한 191억 3천만 달러로 신기록을 세웠다.

수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419만 톤으로 2019년의 수입량 440만 톤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중국의 최대 공급국은 에콰도르로, 세계 최대 새우 수출국인 에콰도르에서 35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수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에 비해 63% 증가한 수치이다. 에콰도르에 이어 러시아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7억 6천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작년에 중국은 56억 5,000만 달러 상당의 민물새우를 수입(주로 양식 새우)하였으며, 중국 최대의 수산물 수입 품목이다. 이는 2021년에 비해 53% 증가한 수치이다.

수입량은 43% 증가한 87만 4,000톤으로 직접 수입 사상 최대 물량을 기록하였다.

중국이 수입한 계의 대부분은 러시아산으로 10% 증가한 7억 1천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지난 6월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산 킹크랩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냉동 킹크랩보다 중국과 한국으로 수출하는 활 킹크랩이 많아졌다.

중국은 또한 206만톤에 해당하는 51억 달러 상당의 냉동 생선을 수입하였다. 이는 2021년에 비해 금액은 45%, 물량은 28% 증가하였다.

명태와 대구는 실제로 중국 국내 소비용이 아니며, 이 생선의 80~90%는 수입 후 가공되어 재수출된다.

지난해 중국의 최대 냉동 생선 공급국은 러시아로 71% 증가한 17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러시아 물량은 54% 증가한 88만 6,000톤을 기록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4월 11일자

### 〈 중국의 국가별 수산물 수입액 〉

(단위: 백만US\$)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에콰도르	495	1,900	1,720	2,187	3,561
러시아	2,115	2,187	1,841	1,864	2,764
베트남	557	991	1,071	722	1,679
인도	394	1,235	842	967	1,263
캐나다	1,011	1,133	833	1,078	1,226
미국	1,256	915	779	978	1,141
노르웨이	579	689	505	726	914
인도네시아	545	655	689	715	791
일본	391	365	251	424	574
뉴질랜드	430	481	431	465	499
기타	4,146	5,203	3,701	4,024	4,722
합계	9,361	12,089	10,551	11,682	15,935





## 호주 양식 및 어업 가치 전년 대비 8.2% 증가 2028년 3월까지 매년 0.7% 증가 예상

호주 어업 및 양식 생산의 총가치는 2023년 3월까지 전년 대비 8.2% 증가한 36억 3천만 호주 달러이며 2028년 3월까지 매년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농림수산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호주 어업 및 양식업 생산 총액은 8.2% 증가한 36억 3,000만 호주달러(24억 4,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치 총생산액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 10% 증가한 1억 6,900만 호주달러를 기록하고 2024~2025년 1억 8,500만 호주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27~2028년 1억 7,300만 호주달러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정부는 2024~2026년 어기 동안 호주의 남방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TAC)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다.

남방 참다랑어는 호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참치 어종

으로, 대부분 일본으로 주로 수출된다.

연어류의 총생산액도 13% 증가하여 14억 6천만 호주달러를 기록, 호주 전체 어업 및 양식업 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2024년 추가 성장이 예상되며, 중기적으로 약 5억 6천만 호주 달러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은 중기적으로 주로 국내 시장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의 모든 성장은 양식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2022년 수출은 팬데믹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국제 가격 변동성 확대에 의해 62% 감소한 1,543톤으로 1998~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2022~2023년에 더 감소한 후 2028년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3월 27일자





## 바 다

박 필 상

바다는 엄마처럼 가슴이 넓습니다  
온갖 물고기와 조개들을 품에 안고  
파도 칠얼거려도 다독다독 달랠니다

바다는 아빠처럼 못하는 게 없습니다  
시뻘건 아침 해를 번쩍 들어 올리시고  
배들도 갈매기 떼도 동실두실 띄웁니다





## 3월 오징어 국내 동향

원양산 대량 반입으로 생산량 증가, 소비자가격 상승

### □ 생산동향(3월 오징어 생산량, 원양산 반입으로 전월 대비 대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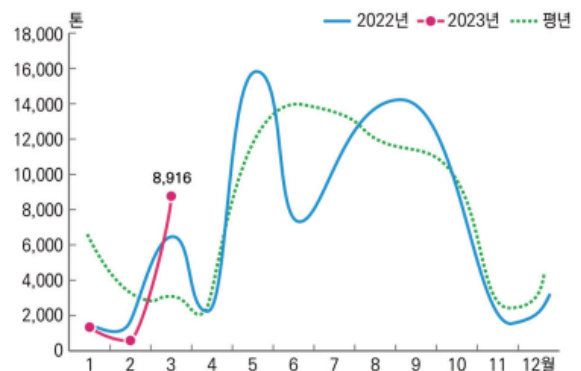
3월 오징어 생산량은 원양산 반입으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한 8,916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도 많았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378톤으로, 동해남부와 남해 일부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으나 어군밀도가 낮고 수온이 높아 어황은 평년 대비 부진하였다.

지역별로는 울산수협(125톤), 기장수협(60톤) 등 동해안지역으로 268톤, 통영수협(30톤), 부산시수협(16톤) 등 남해안으로 104톤이 위판되었다.

원양산 반입량은 8,538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의 원양산 오징어 생산량은 2만 9,575톤으로, 작년(3만 919톤)보다 4.3% 적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11.2%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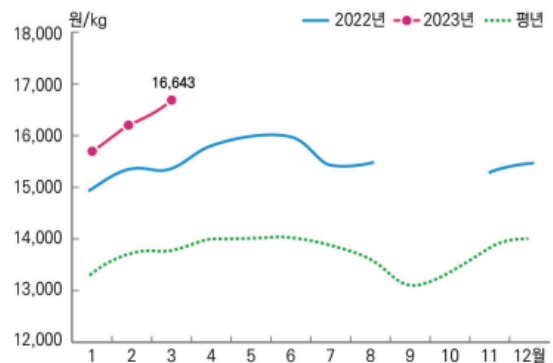
### □ 가격동향(3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3% 상승한 kg당 16,643원)

3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위판량이 미미하고 신선도가 낮아 전월 대비 19.2% 하락한 kg당 3,977원이었다.

이는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9.6%, 25.5% 낮은 가격이다.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도 전월 대비 7.8% 하락한 kg당 21,887원이었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3.1% 상승한 16,643원으로 작년, 평년 동월보다도 높았다. 이는 신선냉장품 공급 부족 및 품질 저조로 냉동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 수출입동향(3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14% 증가한 2만 3,835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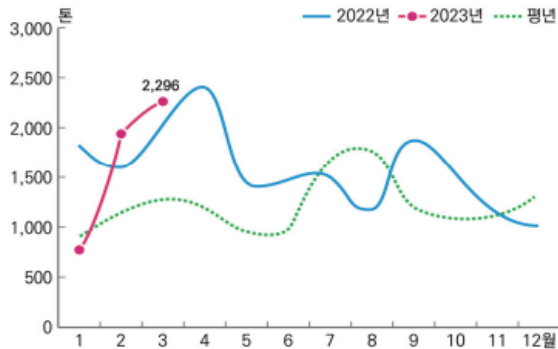
2월 오징어 수출량은 2,296톤으로 전월 대비 20.1% 증가하였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는 1,964톤, 기타는 332톤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1,139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베트남(436톤), 미국(316톤)의 순이었다.

3월 오징어 수입량은 2만 3,835톤으로 전월 대비 13.8% 증가했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도 각각 2.7%, 18.2%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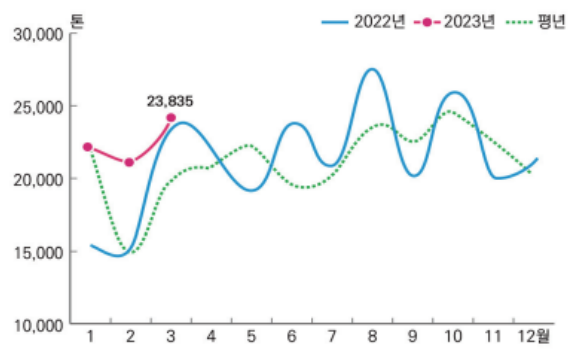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 9,759톤, 기타는 1만 4,976톤이었으며, 기타는 대부분 '조제 또는 저장처리(11,829톤)'된 제품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페루산이 1만 3,112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산 8,927톤, 베트남산 384톤 등이 수입되었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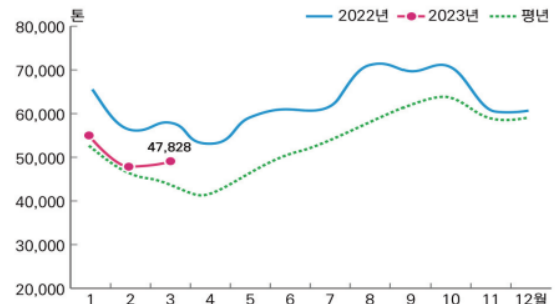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3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2% 증가한 4만 7,828톤)

3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은 4만 7,828톤으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으나 작년보다는 17.3% 적었다.

4월은 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며 연근해 생산은 미미하겠으나, 원양산 반입이 많을 것으로 보여 재고는 3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KMI 수산물측 4월호



## 3월 명태 국내 동향

휴어기로 생산 없었으며, 소비자가격 소폭 하락

□ **가격동향**(3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kg당 5,312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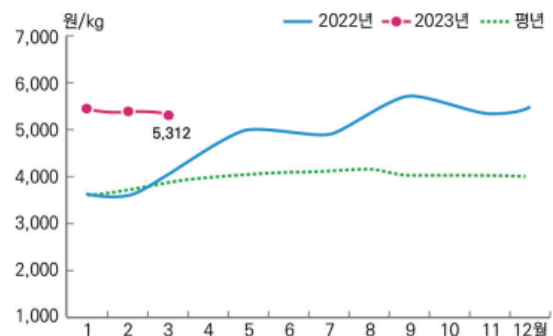
3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475원으로 러시아산 명태가 원활하게 수입되며 전월 대비 2.8% 하락하였다.

평년 대비 13.1% 높았으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3.8%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이는 '러-우' 사태에 따른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작년 2월부터 도매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1.5% 하락한 kg당 5,312원이었다. 이는 월초까지였던 정부비축물량 상시방출\*이 중순부터 재개되었고, 이에 일부 대형소매점에서는 할인행사를 중단하지 않고 월말까지 계속했기 때문이다. \*정부비축 상시방출(명태·고등어·오징어): 2023.2.6~2023.3.5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32.2%, 37.3%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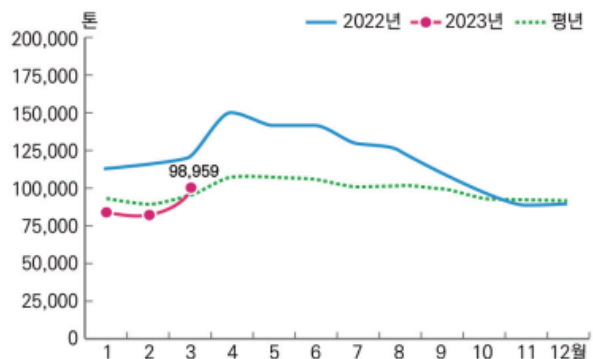
주 : 2023년 3월은 잠정치임  
자료 : aT KAMIS

□ **재고동향**(3월 재고량, 전월 대비 증가)

3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전월(89,611톤) 대비 10.4% 증가한 9만 8,959톤이었다.

이는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도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17.5% 적었으나 평년보다 5.0% 많았다.





□ 수출입동향(3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29% 증가한 3만 2,380톤)

3월 명태 수출량은 전월(6,220톤)보다 40.2% 감소한 3,721톤이었다. 중국으로 재수출이 많았던 작년 동월 대비 82.1%, 평년에 비해서는 41.4% 적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2,383톤), 베트남(457톤)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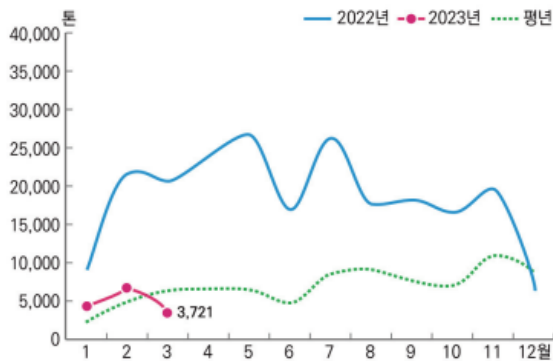
3월까지 누적 수출량은 1만 4,238톤으로 작년 대비 72.4% 적었으나 평년보다 3.0% 많았다.

명태 수입량은 3만 2,380톤으로 전월(25,168톤)보다 28.7% 증가하였다. 작년 동월 대비 33.4% 적었으나, 평년보다는 2.9%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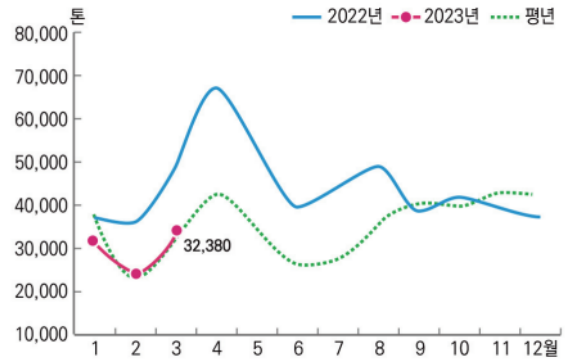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21,483톤)와 냉동필렛(4,691톤), 미국산 냉동연육(2,242톤), 러시아산 진조명태(1,988톤) 등의 순이었다.

3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8만 9,140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8.4%, 3.1% 적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 출처: KMI 수산물측 4월호



## 김정례 주무관, NPFC 부의장 선출

### 향후 자원관리 주요 역할 기대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7~24일 삿포로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7차 총회에서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주무관이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2020년부터 우리나라 대표단으로서 NPFC에 참석하여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그 기여를 인정받아 이번 제7차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김 주무관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총

회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행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에서 의장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

김 주무관은 현재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총회 의장(2021~)으로서 국제 논의를 이끌며 역량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번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북태평양 수산자원 관리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원양 항해 중 아플 땀 해양원격의료로

### 원양 상선과 원양 어선 160척에 해양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는 원양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해양원격의료지원 사업을 올해 160척의 선박(‘23년 신규 20척, 3,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양 운항선박의 경우 근무특성 상 승선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 응급상황 및 치료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와 함께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위성통신으로 해양의료센터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8년 간 총 62,36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난해에는 14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17,70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올해는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선정 기준에 따라 지난 3월 20일(월) 신규 대상선박 20척을 선정하였으며, 3월 21일(화)부터 지난해 대상선박 140척과 함께 총 160척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원양선원 4,000여 명에게 응급처치 지도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및 가벼운 질환(소화기, 피부 등)에 대한 건강 상담 등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선정기준〉

- ①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국적선 및 국적취득 조건부 용선선박(BBCHP)
- ② 장비설치 여건: 통신환경, 국내입항 여부
- ③ 국적 선원수: 국적 선원이 많은 선박 우선
- ④ 신청 선사별 1척 이상,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선사 1척 이상에 우선권 부여



## 우리 바다 방사능 안전성, 지도에서 한 눈에

52개 조사 정점의 해양방사능 정보, 지도에서 쉽게 확인 가능

해양수산부는 4월 6일(수)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개선되는 서비스는 4월 6일부터 일주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기간 표 형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정보를 활용하여 지도에서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는 지도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내용을 알고 싶은 정점을 선택하면, 해당 조사 정점의 시기별 조사항목과 분석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연안을 대상으로 해양방사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물 생산해역 등 7개 정점을 추가하여 총 52개 정점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그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해역의 방사능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방사능 조사결과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이 외에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해양환경정보포털) 해양관측 & 정도관리 →

해양환경 관측&조사 → 해양방사성물질조사정보

\*\* (해양수산부 누리집) 알림·뉴스 → 해양방사능 정보



###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 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e-mail: kosfa@kosfa.org





##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일 보고서 발표

“충분히 보수적이고 현실적” 결론…세부 방법론 계속 검토 예정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시간으로 4월 6일 (목), 오전 2시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일환으로 지난해 실시했던 IAEA 모니터링 TF의 3차 방일 미션('22.11.14~18)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IAEA 모니터링 TF는 IAEA가 일본 측 오염수 처분 계획의 국제기준 부합여부 및 규제 측면 등을 검토하기 위해 IAEA 사무국 직원과 국제전문가 11명(국적: 한국,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캐나다, 베트남, 아르헨티나, 마셜제도)으로 구성된 TF이다.

이번 3차 방일미션 보고서는 지금까지 IAEA 모니터링 TF가 후쿠시마 원전 안전성 검증과정에서 발표한 4번째 보고서이다.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내 방출 전 측정 대상 핵종 선정방식과 관련해 핵종별 측정 및 분석결과를 반영했으며, ‘충분히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세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IAEA 모니터링 TF는 지난 '22.2월 1차 방일 미션 시 도쿄전력이 예측 위주로 선정한 측정 대상 핵종(64개)을 실제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한 실측 기반으로 재선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그 이유로 측정대상 핵종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환경모니터링과 깊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IAEA는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포괄적이라는 점에 동의했으며, 환경모니터링 대상 핵종에 대한 설명과 정당성을 수용했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IAEA는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가정 및 방법론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면서도, 이런 요청이 도쿄전력이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IAEA는 다음달 일본 방문 등 추가적인 질의와 검토를 지속한 후 모든 측면에 대한 TF의 결론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며, 종합보고서 발간 이전에 IAEA 4차 방일미션(23년 1월) 보고서, IAEA 2차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1차 오염수 분석결과) 등 추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 전반에 대해 NRA(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검사자료 및 심사회의 내용, 일본과의 질의·답변, IAEA 확증 모니터링 결과(분석 중)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기술적 종합 분석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 등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지속 유지하고,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전 품종을 대상으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며, 원산지 표시 점검과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2011년 이후 우리 원근해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해역의 해양환경과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3월)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22년 해양사고는 소폭 증가, 인명피해는 감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2년 해양사고 통계 공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22년 해양사고 통계”를 공표하였다.

2022년 해양사고 건수는 총 2,863건이 발생하여 전년(2,720건) 대비 5.3% 소폭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와 부상자는 각각 99명과 313명으로 집계되어 전년(120명, 392명) 대비 각각 21명(17.5%) 및 79명(20.2%) 감소하였다.

전체 해양사고 2,863건 중 어선 사고가 60%(1,718건), 비어선 사고는 19%(543건), 수상레저기구는 21%(602건)를 차지하였다.

그 중 주요사고(673건)는 충돌 36.3%(244건), 안전사고 22.9%(154건), 화재·폭발 21.8%(147건), 전복 14.6%(98건)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고, 단순사고(2,190건) 중에는 기관손상사고가 39.8%(87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전년과 대비하여 주요사고는 6.4%(46건) 감소하였지만, 단순사고는 9.4%(18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해양사고통계”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 해양사고통계-통계연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올해도 안전어선, 안심어업 지속 추진한다

###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시행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시행계획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한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2022~2026)」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총 4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실로 인한 어선사고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사고 발생 시 어업허가·면허에 대해 정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처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조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고자 조업 시 주로 사용하는 어업설비에 무선원

격 조정기능을 추가한 ‘원격조정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난위치발신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업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선 안전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선의 위치를 관리하는 어선안전조업 관리시스템(FIS)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고 다발선박·나홀로선박·소형선박 등 고위험·취약어선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관리로서 안전한 어선이 건조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어선 설계플랫폼과 어선건조산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총무, 자금 서무관리, 차량운영
		공길웅 과장	589-1605	
		조성환 과장	589-1606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사	589-1603	총괄(겸직) 기획, 홍보 원양뉴스, 생산통계
		조성주 과장	589-1608	
		김민재 사원	589-1609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무역제도, 수출통계 노사, 선원
		김영수 과장	589-1611	
		최은혁 주임	589-1619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신현애 상무	589-1602	총괄(겸직) 국제협력 참치선망 참치연승
		최봉준 과장	589-1613	
		백상진 주임	589-1614	
	해외협력2부	정윤경 사원	589-1615	총괄 오징어, 기타트롤 복양, 품치
		진호정 부장	589-1616	
		최상진 사원	589-1617	
부산지부	부산지부	이성재 이사	051-253-3388	총괄 확인업무(수출, 반입)
		김현애 과장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051-253-3391	차량계량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해외수산물협력센터	센터장실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총괄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통계, OFIS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물기구	
				김수민 전문관
	-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기구	
				-

■ 홈페이지: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02-589-1630/1, (부산지부): 051-253-3392, (해외수산물협력센터): 044-868-7840

## 명에해양수산물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수산물	62-0343-4742525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수산물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	64-3-344-1617 seajho@xtra.co.nz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창원 자문위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자문위원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56호

발행: 2023년 4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간별: 월간

발행처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 건강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 조기류(민어과)

저수용 생선으로 저칼



##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